genesystem

PRESS RELEASE **배포일자: 21.04.26**

진시스템, 제주대학교와 산학협력 및 신속 진단 플랫폼 기증

▶ 반려동물 감염증 진단키트 개발해 신속 진단 시스템 보급 확대 전망

▶ 분자진단 플랫폼 보급과 저변확대로 통해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2021-04-26> 신속 현장 분자진단 플랫폼 기업 진시스템이 제주대학교 부설동물병원과 반려동물감염증 진단관련 산학협력을 도모한다.

신속 분자진단 플랫폼 기업 진시스템(대표이사 서유진)이 26일, 제주대학교 부설동물병원(원장 윤영민)과 반려동물 감염병 신속 진단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산학협력을 통해 진시스템은 반려견, 반려묘를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들의 주요 감염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물병원에서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사업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제주대학교 부설동물병원 윤영민 원장은 "산학협력을 통해 진시스템의 혁신 진단 플랫폼 기술과 동물병원의 임상 테스트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진단 시스템의 개발과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시스템은 신속 현장 분자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기존의 분자진단 검사 시간을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시키고, 검사과정을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해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기술력을 통해 향후 동물들의 감염병 진단검사를 전문 검사센터는 물론 동물병원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진시스템은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언)에 신속 분자진단 플랫폼 및 유전자 증폭 시약을 포함하는 현물 2억원 규모의 기증을 통해 진시스템 진단기술의 저변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진시스템 서유진 대표이사는 "금번 산학협력과 기증을 통해 동물 진단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견인하겠다"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동물 감염병 신속 진단 시스템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바이오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시스템은 5월 수요예측과 청약을 거쳐, 상반기내 상장할 예정이다.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사진자료]

▶사진설명: 진시스템 서유진 대표(사진 오른쪽 2번째)가 제주대학교 부설동물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자료문의 : 진시스템 유호성 이사 (042-863-8551)**
IR큐더스 한정선 이사 (02-6011-2000 #120) IR큐더스 안재희 선임 (02-6011-2000 #213)